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김열규 사무관(5334), 이디도 사무관(5335)

윤상직 장관, 對중국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-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선제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7.4일(목) **對中 수출기업, 농수산·유통·건설·플랜트 기업** 등과 함께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
< 對중국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개요 >

◇ 일시/장소 : '13.7.4(목) 15:00~ / 산업통상자원부 6층 초정실(618호)

◇ 참석자 : 산업부 윤상직 장관, 對중국 수출기업, 유관기관 등 약 20명

* 對중국 수출기업(대기업 3, 중소중견기업 3), 농수산·유통(3), 건설·플랜트(3) / 유관기관 : KOTRA, 무보, 무협

○ 금번 간담회는 韓-中 정상회담의 무역부문 후속조치 방안 및 對中 수출시장 변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중국이 세계 무역 1위로 부상**하면서 소비재 수입 및 중서부 내륙 지방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,

○ 자동차부품·전자부품 등 **핵심 부품소재**와 함께 화장품·농식품 등 **내수용 소비재**와 플랜트·기계설비 등 **서부개발 수혜품목**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**(붙임자료 참고)**

□ 이날 참석 기업들은 중국 지역별 시장정보 부족, 통역 등 중국 관련 전문인력 부족, 제품 인증 수취 애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

□ 윤상직 장관은 우리 **對中 수출이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위주**여서 중국의 수출 및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면서,

○ 한-중 FTA 체결과 **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에 대응한 새로운 對中 진출 전략을 설계할 시점**이라고 밝힘

□ 윤상직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**종합적인 對中 수출지원 방안**을 마련하여 **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**에서 발표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디도 사무관(☎ 02-2110-53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중국의 교역구조 및 대중 수출트렌드 변화와 시사점

1. 중국의 교역규모와 對中 수출 추이

□ **2013년 중국은 세계 1위 무역대국으로 부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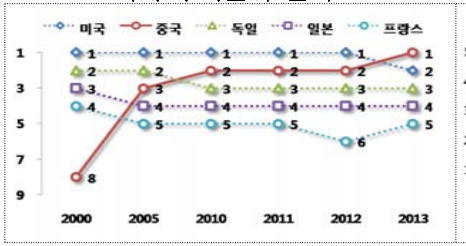
○ 중국은 WTO 가입('01) 등 경제 개방 이후 '세계의 공장'으로 급부상하며 미국,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무역 1위로 등극('13.4월 현재)

* '12년 근소한 차이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~4월까지 중국(1.33조 달러)이 미국(1.26조 달러)을 크게 앞섬으로써 세계무역 1위가 확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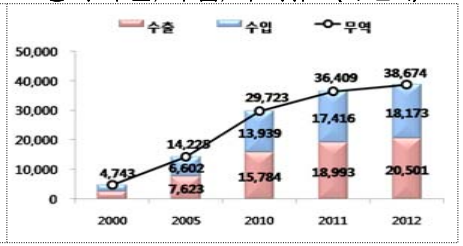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선진국의 생산기지로서 '12년 수출 2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수출 연관 중간재 및 자본재·소비재 등의 수입도 큰 폭으로 확대

* '00~'12년간 연평균 증가율(%) : (무역) 19.1 (수출) 19.2 (수입) 19.0

< 세계 무역순위 변화[1] >



< 중국 수출, 수입, 무역규모(억 달러) >



(주1) : '13년은 1~4월 기준 / (자료) : WTO, 한국무역협회

□ **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나, 최근 對中 수출증가율 둔화**

○ 중국은 우리 수출의 24.5%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

* 對中 수출비중(%) : ('00) 10.7 →('05) 21.8 →('10) 25.1 →('11) 24.2 →('12) 24.5 → ('13.1~5월) 25.2
- 주요 시장 수출비중('12년, %) : (ASEAN) 14.5 (미국) 10.7 (EU) 9.0 (일본) 7.1

○ 한편 중국의 수입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對中 수출은 '1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

* 對中 수출증가율(%) : ('00) 34.9 →('05) 24.4 →('10) 34.8 →('11) 14.9 →('12) 0.1 →('13.1~5월) 10.7

2.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

※ 본 보고서의 소비재, 자본재 분류는 UN BEC 코드 품목분류에 따른 것으로, 우리나라 무역통계상 성질별(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) 분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음

□ 1차산품·소비재 수입비중 확대, 자본재·중간재 비중 하락

○ 가공단계별로 보면 반제품, 부품 등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, 1차 산품·소비재의 수입비중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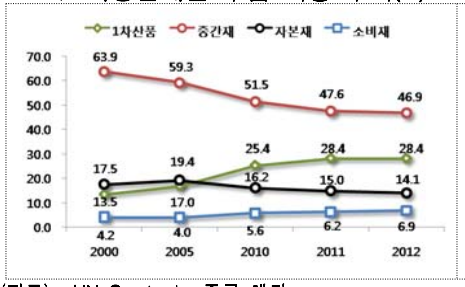
- 중국내 생산규모 확대에 따라 원자재·연료·미가공 식음료품 등 산업용 1차 산품 수입이 크게 증가

* 주요 1차산품 수입액(억 달러, '00 → '12년) : (미가공 원자재) 120 → 2,173 (연료 및 윤활유) 149 → 2,581 (미가공 식음료품) 35 → 403

- 경제 발전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정용 식음료품·자동차 등 소비재 수입도 큰 폭으로 확대

* 주요 소비재 수입액(억 달러, '00 → '12년) : (가정용 식음료품) 40 → 265 (승객용 자동차) 8 → 455 (내구성 소비재) 6 → 169

< 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추이(%)>



< 中 지역별 수입 비중 추이(%) >



(자료) : UN Comtrade, 중국 해관

□ 가공무역 비중 축소, 일반무역 비중 확대

○ 중국의 전체 수입 중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'00년 41.1%에서 '12년 26.5%까지 하락

* 中 가공수입 비중(%) : ('00) 41.1 → ('05) 41.5 → ('10) 30.0 → ('11) 27.0 → ('12) 26.5

□ 화동지역 수입비중 하락, 화북·중서부 내륙지방 비중 확대

○ 중국의 무역은 他지역에 비해 생산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화동(광동성, 강소성, 상해 등)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,

* 중국 지역별 GDP 비중('11년, %) : (화동) 47 (중서부) 27.3 (화북) 17.2 (동북) 8.8

- 최근에는 화동 이외 지역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비중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내륙지방이 약진이 두드러짐

* 중서부 지역 : 중남(하남, 해남, 호남 등), 서남(중경, 사천, 운남, 귀주 등), 서북(청해, 티벳 등)

〈참고〉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변화

○ 중국의 10대 수입품목(HS 4단위 기준)은 원유·철광 등 산업용 원자재와 전자부품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

○ 한편, 최근 들어 승용차, 콩 등도 10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하는 등 1차 산품·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연

< 연도별 중국 10대 수입 품목(HS 4단위 기준, %) >

순위	2000		2005		2011		2012	
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
1	원유	6.6	전자집적회로	12.5	원유	11.2	원유	12.1
2	전자집적회로	6.1	원유	7.2	전자집적회로	9.8	전자집적회로	10.6
3	정보처리기기 부품	2.4	LCD	4.6	철광	6.4	철광	5.3
4	정보처리기기	2.0	철광	2.8	LCD	3.0	LCD	3.1
5	유무선통신기기	1.8	정보처리기기	2.7	승용차	2.3	승용차	2.5
6	열전자관 등	1.7	TV, 라디오 부품 등	2.5	석유제품	1.8	유무선통신기기	2.2
7	석유제품	1.6	정보처리기기 부품	2.5	유무선통신기기	1.8	콩	1.9
8	TV, 라디오 부품 등	1.6	트랜지스터 등	1.7	콩	1.7	정보처리기기	1.9
9	트랜지스터 등	1.6	석유제품	1.6	정보처리기기	1.7	석유제품	1.8
10	기타 기계류	1.6	기타 기계류	1.3	구리제품	1.4	구리제품	1.5

3. 우리나라 對中 수출 트렌드 변화

□ 중간재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소비재 수출비중 하락 추세

○ '00년 85%에 달하던 중간재 수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70%대를 기록하는 등 중간재 의존 수출구조 고착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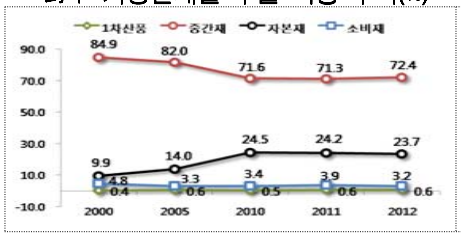
- 日·美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편

* 對中 중간재 수출비중('12년, %) : (일본) 64.1 (독일) 43.1 (프랑스) 41.0 (미국) 3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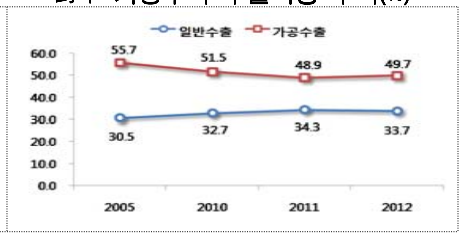
○ 對중국 소비재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, 기계류 등 자본재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출비중 하락

* '01~'1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(%) : (자본재) 26.9 (소비재) 14.1 (전체) 18.0

< 對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(%)>



<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 추이(%) >



(자료) : UN Comtrade, 중국 해관

□ 가공수출 비중은 하락추세이나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

○ 對중국 가공수출 비중은 중국 전체 수입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내수를 위한 일반무역 형태의 수출 비중 확대

* 우리나라 對中 가공수출 비중 추이(%) : ('05) 55.7 → ('10) 51.5 → ('12) 49.7

○ 한편,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가공수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중 상당 부분이 가공 후 제 3국으로 재수출

* 對中 가공수출 비중('12년, %) : (대만) 51.8 (일본) 35.4 (홍콩) 30.9 (미국) 14.9

- 우리 對中 수출은 중국의 수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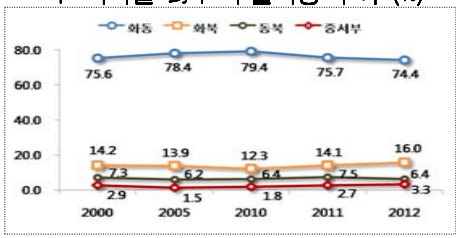
□ 중서부 지역 수출비중 상승 추세이나 미미한 수준

○ '10년까지는 화동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 등 中 수입과 반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화북·중서부 수출비중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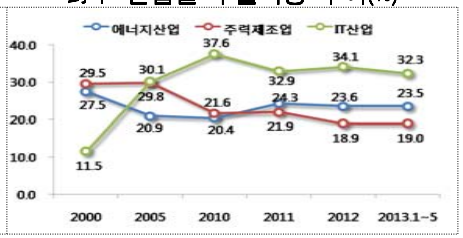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중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수출 비중은 3%대에 그치는 등 미미하며 최근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서남지역 수출비중은 1% 미만

* 서남지역 수출비중 추이(%) : ('00) 0.8 → ('05) 0.4 → ('11) 0.7 → ('12) 0.6

< 中 지역별 對中 수출비중 추이[1](%)>



< 對中 산업별 수출비중 추이(%) >



(주1) : 對中 성(省)별 수출통계 미비로 중국 수입통계 분석 / (자료) : 한국무역협회

□ 주력제조업 수출비중 하락, 반도체·LCD 등 IT산업 수출 급증

* 주력제조업 :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일반기계, 철강, 선박, 섬유
IT 산업 : 반도체, LCD, 가전, 컴퓨터, 무선통신기기 / 에너지산업 : 석유화학, 석유제품

○ **(수출비중 하락)** 해외투자 확대, 중국내 생산 증가 등으로 섬유·철강 등의 주력제조업 품목 및 컴퓨터·가전 등의 수출비중 하락

- **(섬유류)**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수출규모가 정체되면서 비중 하락

* 섬유류 해외투자 추이(백만달러) : ('00) 251 → ('05) 633 → ('11) 686 → ('12) 436
* 對中수출 중 섬유류 비중(%) : ('00) 14.4 → ('05) 4.8 → ('11) 2.2 → ('12) 2.0

- **(철강)** 중국 내 급격한 철강 생산 증가에 따라 對中 수출 둔화

* 중국 조강 세계점유비(%) : ('00) 15.1 → ('05) 30.9 → ('11) 45.1 → ('12) 47.2
* 對中수출 중 철강 비중(%) : ('00) 7.1 → ('05) 6.9 → ('11) 3.9 → ('12) 3.3

- **(정보가전)** 해외 생산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세

* 주요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('12년, %) : (TV) 94.2 (에어컨) 80.1 (냉장고) 76.5 (세탁기) 69.0
* 對中수출 중 비중('00 → '12, %) : (가전) 3.7 → 1.3 (컴퓨터) 4.0 → 1.7

○ **(수출비중 상승)** 반도체·LCD 등 전자부품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동차·자동차부품의 수출비중도 꾸준히 증가

- **(전자부품)** 중국이 세계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産 반도체·LCD 등의 수요 증가

* 中 전기기기 및 부품 수출액(억 달러) : ('00) 460 → ('12) 4,875 (10.6배↑)
* 對中수출 중 비중('00 → '12, %) : (반도체) 3.1 → 12.8 (LCD) 0.0 → 14.8

- **(자동차 및 부품)** 우리 기업의 중국내 생산 증가로 車부품 수출 증가 및 소득증가·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완성차 수출 확대

* 우리기업 중국내 자동차 공장 연간 생산 규모 : 현대차(100만대), 기아차(45만대)
* 對中수출 중 비중('00 → '12, %) : (자동차) 0.5 → 1.1 (車부품) 0.4 → 3.8

4. 시사점

1 중국 전체 수입 중 절반('12년 : 47%) 가량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 시장을 경쟁력 높은 **핵심 부품소재**로 적극 공략

○ 특히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내수용 중간재 시장을 ①대형 LCD, ②시스템반도체, ③고급 자동차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소재로 선점

2 소득 수준 향상과 외국제품 선호에 따라 최근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**중국 내수용 소비재 시장** 진출 확대

○ 안전 중시·고급화되고 있는 中 소비성향에 대응하여 ④화장품, ⑤유아용품(분유 등), ⑥유통·프랜차이즈 등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

○ 또한 최근 중국의 韓流 열풍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⑦농수산 가공식품, ⑧문화콘텐츠 등의 틈새시장 공략

3 **중서부 내륙지방 '新도시화'**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대두되는 가운데, 내륙 개발에 따른 수혜품목 수출 확대

○ 인프라 개발을 위한 ⑨건설·플랜트, ⑩기계설비류 등 수출시장 진출